

아르헨티나 1 부,,2005 년 6 월 20 일부터 2005 년 8 월 18 일까지
¿어디서 왔니?

지구반대편 남미 땅에 발을 디디며

12 시간 비행. 브라질 상 파울로 도착..도대체 오늘이 여기가 5 월 31 인가? 아니면 5 월 30 일인가? 정신이 해롱하다 짧은 시간동안 유리너머로 본 브라질 공항의 이미지는 매우 서구화된 이미지였고 브라질에서 3 시간 비행하여 드디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정신이 없다. 공항의 분위기는 어둡고 스산하다. 짐이 안 나오는 걸까? 다른 사람들의 짐은 다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짐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갑자기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짐 보낼 때 실랑이를 했던 것이 혹시나 잘못 되거나 않았나 싶은 마음이 들었다.에릭이 스페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장점인가.조금 기다리면 짐이 나온 댄다. 드디어 덜커덩덜커덩 일반 짐이 나오는 곳에 우리자전거가 담긴 박스가 나왔다. 아니 박스를 열어보느라고 이렇게 오래 걸린것일까 자세히 보니 JAL 항공에서 자전거 싣는 박스랑 다른 박스를 열어본 것이 아닌가! 자전거 박스는 느슨하고 은근히 걱정도 되고 화가 나기 시작했다. 직접 여기서 뜯어 확인 후 손상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 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나의 의견에 에릭은 손상이 안 보인다며.. 나를 위로해주었지만 자전거 박스를 풀어 확인할 때까지 내 마음은 불안하기 그지 없었고 일본인이 마냥 밍게 생각되었다. 뜯었으면 제대로 부쳐 놓거나 할 것이지.

시작이 좋으면 반은 해결

세관원이 모든 6 개박스를 다 열어보라고 하면 곤란한데 일단 스마일 작전을 쓰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이라 공항은 텅텅 비어있었다.세관원들 몇 명이 모여 담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중한사람이

!” De Deonde vienen?./어디서 왔나요?” 한국인이지만 독일에서 왔는데요.

“ Que este todos? /이것이 전부 무엇인가요?- 여행할 자전거랑 짐입니다

“Muy Bien!! Muy Bien!”/좋아요, 좋아. 통과하세요

우리에게 아주 익살스럽게 질문을 던진 세관원은 동료 세관원들을 불러 우리가 자전거로 아르헨티나를 여행할 계획이라며 자랑스럽게 설명까지 하며 무사하게 통과를 해 주었다. 나중에 교민들에게 들은 이야기이지만 부에노스를 출입하는 한국인들은 세관원들에게 많이 뜯긴다고 한다. 한국에서 음식물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음식물 반입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세워 돈을 요구하거나 아예 한국 사람이 들어오면 뒷돈이 생기겠구나 한다고 하는데 우리 운이 좋았던 것 같다.



부에노스 공항 도착시

아르헨티나 첫 TV 방송 출연 -6월 20일 11시 Telefe 뉴스

3주 내내 2틀 걸쳐 내리던 비가 우리가 떠난다고 하니 딱 멈추었다. 그 동안 스페인어두 조금 배웠고 날씨도 협조를 해주고 떠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들뜨고 기뻐다. 드디어 자전거로 곳곳을 돌아 볼 수 있다는 기쁨을 너무 표현하여, 아니 흥분한 대가로 침낭을 걷어 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머리, 다리, 허리, 무릎 타박상을 입었다. 얼마나 아프던지 지금 까지 그 무릎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다.하느님이 보호하셨기에 다행히도 머리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무릎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났지만 아픔보다는 갈 길에 대한 희망이 더 커 자전거에 올랐다. 집 앞에서 자전거 조립하고 하는데 근 1시간 소요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준비하는 도중 방송사의 사람이 오더니 인터뷰를 신청해 오는 것이 아닌가?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 OK. 10시 30분 인터뷰, 11시 방송이란다.일반적인 질문이었다. 어디서 왔냐? 왜 자전거로 여행을 하느냐? 아르헨티나에 대한 소감?에릭이야 유창한 스페인어로 답변이 가능하지만.. 난 더듬더듬..역시 자전거 트레일러에 강릉 시에서 제작해준 홍보 물을 단 것은 잘한 일인 것 같다. 앞에 가방에도 Republic Korea, Gangneung 로 쓰여 있어 아주 쉽게 방송에 보도 되었으니 말이다..유감스럽게도 우린 이 방송을 보지 못했다. 여행도중 방송을 보았다며 반가와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방송이라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한편 단점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며 우리가 부유한 자전거 관광객인지 알고 잘 못하면 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자전거에 모든 짐을 부착하고 트레일러를 타는 것이라 겁도 나고 처음 1시간은 적응하느라고 힘들기만 했다. 그리고 아침에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고 일부러 휴일을 선택했지만 역시 한나라의 수도는 무시 못하는 법이다.도로에 차량은 대단했고 오염 또한 심했다. 손하고 코 끝이 까맣게 되고 얼굴은 물론이고 깡 씨가 따로 없구나 싶었다.그런데 웬일.. 버스 운전사들도 그렇고 너무나 우리들에게 관대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모두들 손 흔들고 완전히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느낌이었다. 잠깐 신호등에 서면 “어디로 가요? 행운을 빌게요” 등등 너무나 기분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어 아픈 것도 다 잊고 3시간쯤 달렸을까.

아사도 -따뜻한 점심 대접

배에서 꼬르륵.... 저기 보이는 것이 뭐야. 눈이 막 돌아갔다. 숯불갈비/ 아사도(아르헨티나 인들이 칭하는 숯불갈비 명칭) 아닌가?자전거를 세우고 바깥에 자리를 잡고 음식을 시키려는데 주인 아저씨가 오시더니 우리를 손님으로 대접하는 것은 큰 영광이라며 먹고 싶은 고기는 다 고르라고 하셨다.괜찮다고 하는데도 숯불갈비랑 샐러드랑 이것저것 진수성찬을 차려 주셨다.

당신의 식당을 잊지 말라고 식당 열쇠고리를 자전거에 걸어 주시고 기념사진도 찍었다.

좋은 경험 많이 하고 아르헨티나에 또 놀러 오라며 그리고 당신의 식당에 또 들리라고 당부당부 하셨다..첫날에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무지 중요하다. 일단은 사람들에게 신뢰가 쌓이고 힘들어도 힘든 지 모르게 되기 때문이다. 그곳의 숯불갈비는 지금까지 내가 먹어본 어느 곳보다도 맛있었던 것 같다.그리고 아저씨의 사업이 더 번영하여 우리에게 베푸는 친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베풀기 바랄 뿐이다

아르헨티나의 아사도 라고 불리는 숯불 갈비는 정말로 별미이다. 다른 곳의 고기도 맛있지만 부에노스산이 가장 별미라고 한다. 그 이유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변의 팜파 초원은 여름은 매우 덥고 습하며 겨울은 몹시 추워서 부드러운 양질의 목초가 잘 자란다고 한다. 당연히 그 목초를 먹고 자란 소는 다른 지역의 소보다 맛있을 수 밖에 없다. 아사도는 장작불이나 숯불로 5시간 가량 고기를 매달아 복사열로 익힌 요리로 양념은 소금, 후추, 레몬이 전부다. 게다가 고기가 더 맛있는 이유는 어미 소가 되기 전의 송아지를 잡아서 아사도를 한다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아사도 없으면 삶의 희망이 없다는 비유처럼 아사도를 물먹듯이 먹으니 당연히 체격이 클 수 밖에 없다.

빨간 손, 파란 손, 동심으로/교실에서 캠핑

Necochea 까지는 아직 많이 가야하고 도로에는 화물차량 및 버스만 많이 운행 되었다.

농장들도 눈에 띠이지 않아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해지는데 학교 건물이보였다.방학이라 학교가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마당을 보니 자동차가 한대 보이고 조그마한

아이들이 뛰어 놀고 있었다.오늘의 잠자리는 이곳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길에서 무단 캠핑을 해야 할 처지가 된다. 자전거를 길에 세우고 에릭이 들어가서 물어보기로

했다. 시골에서 잠자리를 물을 때는 에릭이 하고 도시에서 숙소를 찾을 때는 내가 한다. 시골 사람들은 여자가 자전거 복장을 하고 오면 일단 놀래고 거부반응이 조금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이기 때문이다. 한참 기다려도 에릭이 나오지 않더니만 마르첼라.(Marcella) 학교의 여교장선생님과 함께 나왔다. 바깥에서 캠핑은 춥고 비가 올 가능성이 있으니 교실에서 텐트를 치고 자던가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갑자기 초등학교, 중학교 때 걸스카웃 활동을 할 때 교실에서 친구들과 침낭을 깔고 잤던 일이 생각났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의 화장실은 모두 푸세 식이었고 밤에 친구들과 화장실 가는 것은 무지 무서워 했던 일이 떠올랐다. 그리고 밤새도록 교실에서 이야기하였던 무시무시한 빨간 손, 파란 손의 귀신이야기랑 다른마귀이야기를 했던 때가 문득 떠올랐다.그리고 무엇보다도 Marcella, Daniell (마르첼라의 남편) 그리고 네 아이를 보니 나의 동생들과 부모님이 생각났다. 어렸을 적 태백에서 아빠가 교장 선생님, 엄마가 선생님 그러니까 당시 불모지 선생님이로 부부교사가 갔던 모양이다. 내가 5살 때 일일 것 같은데도 그때 일들이 자라면서 많이 생각 났고 나의 정서에 많은 도움을 준 것 같다.아이들 4명이 자라는 모습을 보니 꼭 우리 4형제가 그렇게 자랐겠지 싶은 생각에 갑자기 향수가 생기고 가족들이 그리웠다.다음날 떠나려고 하니 비가 온다며 학교에서 며칠 쉬라고 권한다. 하지만 우리는 보슬비를 맞으면 아쉽게 작별을 하고 Necochea 을 향해 전진했다.



주유소에서의 캠핑

고래야! 물개야 내가 왔단다

고래.. 아니 말로만 듣던 고래를 직접 해변가에서 보게 되다니 이런 일이 고래가 지느러미를 움직이며 장난을 치는 것인지 물속에서 무엇을 먹는 것인지,고래가 한 마리도 아니고 한 대 여섯 마리가 해변 가까이에서 보였다.난 아이 마냥 환호성을 질렀고 고래를 본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기만 했다. 조그마한 고래는 이미 태국에서 잠수할 때 번 경험이 있지만 그렇게 큰 고래가 해변 가에서는 30-50 m 구간에서 고래를 볼 수 있었고 항구에서는 2-3 m, 운 좋은 날은 거의 1m 도 되지 않은 곳에서 고래를 볼 수 있는 곳의 이름은 부에르또마드린이다 Puerto Madryn. 난 이곳을 사랑 할 수 밖에 없었다. 바다 가까이에서 태어난 이유도 있지만 난 바다를 보면 항상 마음이 편안하다.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1999년에 유네스코에서 지정 된 “ 페닌슐라 발데스 (반섬임)Península Valdes 에 가면 펭귄, 고래, 물개, 등등 여러 가지의 동물을 볼 수 있어 관광객이 엄청 많다고 한다. 우리가 갔을 때는 아르헨티나의 겨울이라 관광객이 많지 않은 편이지만 9월부터 3월까지지는 시즌이고 고래도 더 많다고 한다. 물론 9월부터 3월까지지는 숙박 비도 배로 뚝뚝다.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에게게는 마음 좋은 천사들이 항상 함께 하는 것 같다. 인터넷에서 찾은 숙소를 찾아가니 방학이라 방이 꼭 찜뚱다.날씨도 좋고 고래도 보이는 바다에서 캠핑을 하고 싶어 찾아 가니 캠핑장이 의외로 너무 멀리 있고 해서 다른 숙소를 찾으러 나섰다.부딪치면 길이 열린다. 믿지나 본전.바깥에서 보니 정원도 있고 가격이 비싸게

보이지만 한번 반 가격이나 흥정이나 해 볼까 하는 마음이 불쑥 들었다. 에릭은 물어도 보지 말라고 했지만 난 시도했다. **Alberto** 아저씨. 무조건 나보고 들어오라며 방을 보여주고 깨끗하고 서구화된 펜션이었다. 가격이 120-150Peso다.”너무 비싸서 우린 못 있어요. 방 보여 주셔서 고마워요. 저희들이 예산한 것은 50Peso 수준인데. 어디 이곳에 일고 계시는 깨끗한 숙소 있으면 알려 주세요 했더니,자전거로 여행 하느라 고생한 것 같은데 50Peso 에 지내면서 편안히 정리하고 고래도 많이 보고 폭 쉬라는 것이었다. **Alberto** 아저씨가 너무 친절하게 우리를 맞아 주셨고 그리고 가격도 우리가 예상한 가격에 주시고 그런데 아쉬웠던 것이 아저씨가 너무 바빠 4 일 있는 동안 함께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우린 아저씨 집에 자전거를 두고 지구의 가장 남쪽인 우수아이어 **Ushuaia** 랑 빙산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갈라파테의 페리또 모레노” **Pelito Moreno**” 을 항공과 버스로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언제 또 아르헨티나까지 올 수 있을런지 모르고 안보고 가면 평생 후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린 결정이었다. 가족 단위로 **Puerto Madryn**을 오면 이곳 **Alberto** 아저씨네 펜션이 정말로 좋다. 호텔이름: Las Bardas (Alberto Pagnanelli), Morgan 1751, Puerto Madryn-Chubut-Patagonia Argentina, Tel:02965-454394 Fax: 02965-473457
 Internet: www.lasbardas.com.ar <http://www.lasbardas.com.ar>
 E/mail: lasbardas@lasbardas.com.ar <mailto:lasbardas@lasbardas.com.ar>
 가격은 성수기와 비수기가 틀림. 펜션이 8 개 밖에 안되므로 예약 상황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음.



물개의 천국 **Puerto Madryn**



와우, 고래다. **Puerto Madryn**

눈 속의 엘 깔라파테

죽을 뻔하다가 살아서 도착한 “엘 깔라파테” 눈이 소복이 쌓여있었다. 어떻게 공항에서 도시로 가야 하지 생각했건만 에릭이 재빠르게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시내로 가는 버스가 있었다. 버스 비용: 12Peso 우수아이아 처럼 우리를 공항에서 내버려 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 일단은 마음이 안정이 되었다. 눈이 소복하게 쌓인 엘 깔라파테 .우리가 찾은 숙소는 관광 안내책에 쓰인 것보다 많이 비쌌다. 지구의 남쪽, 그리고 뜻하지 않은 항공료로 예상한 지출이 많이 소비 되어 조금은 저렴한 곳을 찾아 배낭을 짊어 지고 가다보니우수아이아의 헬레나 (한국분)이 알려준 아파트 호텔이 보였다. 우수아이아에서 우리에게 조금 비싸서 아마 그냥 들리게 되면 간다고 했던 곳인데 들어가 이야기하고 나니 정상 가격의 반으로 해주신다고 하셨다. 둘이 쓰기에는 너무 큰 아파트 호텔이었다. 가족 6 인이 쓰면 딱 적당한 곳이었다. 호스텔 주인은 한국분 권혁태 사장님이시며 동생 되시는 권명숙씨가 남편 김 경득, 딸 김은진과 함께 운영하고 계셨다. 권명숙씨는 여행을 좋아하시고 특히 엘 깔라파테를 고향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셨다.우리의 바쁘고 짧은 일정 때문에 많은 이야기는 못 나누고 떠나는 날 아침 권명숙 (Susannar) 자매님이 식구들과 함께 1 시간 30 분 주변 구경을 시켜주셨다. 딸 은진 이는 4 살 때 아르헨티나에 왔는데 아르헨티나 사는 것이 너무 좋고 정서에도 좋다고 했다. 우리에게 유창한 스페인어로 열심히 새를 설명해주려고 하는 너무 구엽고 꿈이 많은 소녀이다.권명숙 자매님은 오빠 권혁태 사장님이 30 년 전에 아르헨티나에 이민 온 배경으로 현재 아르헨티나에 7 년째 거주하신다.세계적인 빙하가 있는 지역으로 분지여서 겨울에는 춥지 않고 눈도 적게 오고 여름에는 아주 바람이 심하지만 아주 매력 있는 곳이라며 깔라파테 애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민을 왔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스페인어만 구사할 줄 알면 이민 국으로는 권하고 싶으시다며 인구 적고 천연 자원 많은 아르헨티나가 살기 좋으시다며 미국으로 구지 이민을 갈 필요가 있겠냐는 주장이셨다.엘 깔라파테가 아름다운 곳인데 한가지 아쉬운 점이 나무가 많지 않아 그 당시 남편 김경득씨와 욕심 부리지 않고 나무를 한번 재배 해 보고 실험 해 보시겠다는 계획이셨고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12 월에 완공 될 호텔 유토피아 설립으로 무지 바쁘셨다. 한편 책에도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깔라파테의 전설을 열심히 설명해 주셨다. 엘 깔라파테는 야생 초에 달린 진 보라색 열매인데 한 원주민이 이 열매로 짬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 섬을 방문 했을 때 이 짬을 먹으면 다시 깔라파테를 방문한다는 전설이 전해 져서 짬과 아이스크림으로 이곳은 유명하다. 깔라파테의 짬과 아이스는 약간 신듯한 맛이 나는데 요즈음에는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하여 더 많이 찾는다고 한다.소망하시는 나무 심기, 호텔 영업이 잘 되시길 빌며.

SUANAR@HANMAIL.NET. DAUMBLOG.CALAFTE

www.lindavistahotel.com.ar <http://www.lindavistahotel.com.ar>



지구 최 남단 도시 우수아이어 Ushaia

자연의 위대함/ 세계적인 빙하 **Glaciar Perito Moreno**

내가 이렇게 작다니.... 내가 생존한다는 자체의 기쁨 외엔 없었다.세계적인 빙하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환희,느껴보지 않으면 그 자연의 신비를 모를 정도의 아름다움과 표현 자체가 힘든 곳이다. 아마 평생 동안 빙하의 색과 내가 빙하에서 받은 에너지는 잊지 못할 것이다.비용이 들어도 꼭 방문 해 보길 권하고 싶은 곳이다.

참고 : 투어 1: 엘 갈라파테에서 빙하 모레노로 가는 투어는 어느 투어를 이용하던지 동일 가격 **60Peso**. 아침 9 시에 떠나서 저녁 5 시경에 돌아옴. 일반 대중 버스는 **40Peso**. 버스 터미널에서 하루 전에 표를 예약하면 됨. 빙하 모레노에 도착하면 1 시간 빙하 주변을 돌아보는 투어가 있는데 별 필요성 못 느낌. **25Peso**. 공원 입장료 **30Peso**
투어와의 차이점은 가이드가 없다는 것 외엔 모든 것이 동일함.

2. 투어 2: **Upsala (업살라)** / 배를 이용하여 빙하 주변을 보는 것으로 비용 **ca. 200Peso** , 여름에 보는 것이 좋다고 함. 겨울에는 안개가 끼고 배에서 거의 볼 수가 없음. 가격은 어느 곳에 문의하나 동일.



빙하 Perito Moreno Gletscher

눈 속에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눈이 소복하게 쌓였다. 라몬을 비롯해 경찰들은 우리더러 버스를 이용하여 다시 에스켈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권유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 거부작용이 생겼다. 우리 왕 고집은 어느 누구도 말리지 못한다. 눈이 왔지만 알레세스 자연공원이 자전거 타기에는 너무 아름답다고 말을 들어서 호기심도 있었고 한편 왔던 길을 버스로 이용해 돌아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온길 만큼 험하지는 않겠지.그리고 **12km** 가면 호스텔이 있다고 하니 그곳에서 자면 된다. 그런데 으악! 길은 비포장에다 경사였다. 희망은 **12km** 가면 있다는 방가로가 있고 휴식을 취해야지 하는 거뜨한 마음으로 달렸다. 그리고 공원에는 자동차도 없고 천천히 공원의 자연을 만끽하며 달릴 수 있었다. 희망을 안고 간 방가로에 도착하니 아주 커다란 개가 달려와 날 겁주었다. 내가 무서워하니 주인아저씨는 날 잡고 인간이 무섭지 왜 개가 무섭냐며 설교했다. 느낌을 보니 대낮부터 술을 얼큰하게 마셔 술 주정을 하는 것 같았다. 기분도 나쁘고 가격 또한 비싸고 그리고 그곳에서 한 **15km** 가면 다른 호스텔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터라 힘들지만 강행군을 하기로 했다.그런데 아침에 약간 내리던 빗발이 막 쏟아 지지 시작하더니 눈으로 바뀌어 버렸다. 그 도로에 눈이 갑자기 많이 내리더니 쌓이기 시작하고 미끄러웠다.온몸은 긴장 상태에 빠졌다. 집중을 하고 달리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우당탕.. 자전거와 함께 난 뉘 다운이 되었다. 눈에 숨은 돌에 트레일러 뒤 부분이 걸려 급 브레이크를 잡아 자전거가 넘어진 것이다. 다행이 도 다치거나 까지지는 않았다.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자전거를 세우려고 아무리 힘을 써도 안되었다. 에릭은 이미 앞으로 무전기를 쳐도 응답이 없고 한 **30** 분은 씨름을 했다. 추고 비도 오고 날씨는 더 나빠지기 시작하고 에릭은 반응이 없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혼자 끙끙 대다가 힘들고 슬퍼서 엉엉 울고 있으니 에릭이 드디어 왔다. 아무리 기다려도 내가 오지 않아 혹시 넘어지지 않았나

싶었건만 역시나 였다면서 내가 울고 있는 모습이 구엽댄다. 그렇게 힘든 고비를 한번 넘기고 나니 미끄러운 길을 달리는 것이 더 겁났다. 오르막은 그럭저럭 힘으로 자전거를 끌어 올리지만 내리막을 도저히 다리가 떨리고 힘이 빠졌다. 그런데 참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우리가 죄도 짓지 않았는데 비가 눈으로 변해서 앞도 안보이고 완전히 죽기 아니면 살기 지경이 되어 버렸다. 내가 힘이 빠져 혼자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니 에릭은 빨리 앞으로 가서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곳에 두고 와 내 자전거를 끌어 주고 이중으로 힘이 더 들 수 밖에 없었다. 난 정말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내리치는 눈 때문에 앞도 안보이고 우리 둘 다 기진 맥진 해서 어두워지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생각 밖에는 없었다. 더 어둡기 전에 텐트를 길에다가 쳐야지 하고 결정을 내린 순간 앞에서 희미한 불빛에 보였다. 공원 눈 제거차 였다. 한 5km 가면 호스텔이 있을 꺼라고 했다. 힘을 내어 막바지 5km 우리가 도착한 곳이 금후에 Gum Hue 호스텔이었다. 엘리다 아줌마가 재빨리 화롯가에 우리를 앉혀 주셨고 젖은 몸을 말릴 수 있었다. 따뜻하게 샤워하고 저녁을 먹고 나니 나오는 것은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다. 자전거가 넘어져 일어나지 못할 고비를 두 번 넘기고 온통 다리에는 멍 투성이였다. 영영!한 없이 울었던 기억원엔 없다.

다음날은 공원에 눈이 덮여 차량이 통제 되었다고 했다. 방법은 하루를 더 있는 방법 밖엔 없었다. 난 며칠이고 그냥 그곳에서 쉬고 싶었지만 밤 9시 되면 전기가 끊기고 촛불을 키고 지내야 했다. 참 이상한 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꼭 감금된 느낌이 들어 벗어나고 싶다. 이것이 방랑자의 병이다. 3일째 되던 날 공원관리인이 오더니 우리가 가려는 방향은 눈 제거를 거의 끝냈으니 자전거로 여행해도 별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정보를 주었다. 엘리다 아줌마는 하루 더 있지 하셨고 나도 더 있고 싶었지만 정들면 헤어지기 힘들기에 떠나기로 했다.



정말로 힘들다.



고생끝에 낙이 있다. 알레세스 공원의 아름다운 전경

2005년 8월 16일 안데스 산맥 통과 1308m 하여 칠레를 향하여

며칠 내내 눈이 내려 길도 통제되고 눈이 그치고 나니 비가 내렸다. 빌라 앙고스라는 칠레로 가기 전의 마지막 큰 국경 도시이다. 주변에는 7개의 아름다운 호수들이 있고 겨울 관광지로 바리로체 처럼 유명한 곳이다. 99년의 자전거 여행 때도 느꼈지만 한나라에 질린다 싶으면 마지막에 기분 나쁜일이 생기거나 기분이 상해 그 나라를 떠날 때 미련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인지 이곳도 예외는 아니었다. 눈이 와서 움직이지 못하고 자전거 보관이 특히 중요한데 숙소의 주인은 까다롭기만 했다.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 자전거를 눈이 많이 맞지 않는 곳에 두긴 했지만 불친절해서 있는 동안 마음이 영 불편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관광객이 많아서 모든 것이 다른 곳 보다 비쌌고 서비스는 엉망이었다. 정 부치지 말고 과감하게 떠나라는 소리인 모양이다.인터넷의 일기 예보를 보니 이틀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 칠레 쪽은 계속 비가 온다고 하는데 설사 칠레에 비가 와도 칠레로 넘어가기로 했다. 아침 일찍 서둘러 국경을 넘을 차비를 하고 칠레를 향해 달렸다. 눈이 소복이 온 산의 경관과 호수는 멋있는 장관이었다.. 해는 나지만 바깥기온이 매우 낮고 꼭 몸에서 서리가 나오는 듯했다. 난코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1308m의 산 정상에 오르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꼬불꼬불 가도가도 보이지 않는 산의 정상. 하지만 눈이 소복하게 쌓인 경관, 맑은 날씨, 그리고 내 일생에 처음으로 안데스 산맥을 넘는다는 기쁨으로 영차!! 영차!! 하고 달렸다.지나가는 트럭 운전자들은 최고라는 손짓의 격려표시를 해주었고 버스 여행객들은 내려서까지 격려해 주었다. 간혹 보이는 소들은 “아니!!! 이 힘든 지역에 웬 자전거? 하는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는 눈빛이었다. 그런데 소가 움직이지 않았다. 아마 내 자전거가 빨간색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 신기해서 인지 빨이 달린 소가 갑자기 달려 들 수도 있다고 들었기에 옆으로 지나갈 때는 온몸에 소름이 바싹바싹 돌았다. 오르막, 소와 씨름하다보니 기진 맥진이었다.에릭은 자전거를 끌지 않고 정상까지 타고 올라간 모양인데 난 도저히 타고 올라 갈수가 없어 끌다가 타다가 그러다 보니 어느덧 눈이 소복하게 쌓인 안데스 산의 정상에 올랐다. 야호!!!!!! 해냈구나....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었다. 왜 구지 죽음을 무릎 쓰며 산을 등반하는 이유를..하지만 내가 직접 힘들게 자전거로 달려보니 왜? 임을 조금은 알 수가 있을 것만 같다.에베레스트 산과는 정말로 비교가 안 되는 곳이지만 나에게 첫 에베레스트산이나 마찬가지이다.



국경도시를 향하자

천사의 보호, 아르헨티나와 작별

이제부터 내리막이다. 힘들게 올라온 오르막의 대가를 받아야지 했는데 도로에는 눈이 소복이 깔려 있었고 눈이 녹은 곳은 얼음이 형성 되어 미끄러웠다. 그래도 내리막의 기쁨을 느껴 보기 위해 칠레의 국경을 향해 달렸다. 아차차! 으악! 얼음에 미끄러져 자전거가 내동댕이 쳐져 균형을 잡을 수 없었다. 흰희를 맛보는 것도 좋지만 잘못하면 병원응급실에도 가기 힘들 지경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왔다.

안데스산맥 정상에서 칠레 쪽의 도로 눈 작업을 하는 사람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마침 그 차량이 내려 오는 것이었다. 에릭은 아마 힘들더라도 천천히 위험을 무릎 쓰면서 내려가고 싶은 눈치 인 것 같았지만 난 그 차량을 세워 위험한 지역까지만 태워달라고 부탁했다. 칠레 인은 오히려 본인이 정상에서 내려가는 길이 매우 위험하다고 했는데 왜 그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냐며 잘한 결정이라면서 자전거를 픽업에 싣고 칠레 국경까지 내려 왔다. 그 길을 아마 자전거로 내려 오려고 했더라면 몇 번이고 넘어지고 밤새 내려와도 못 내려왔을 지역이었다. 아르헨티나 쪽은 배설작업을 했건만 칠레 쪽에서 도로의 눈을 하나도 제거하지 않아 모든 차량이 겨울체인을 하고도 힘들게 오르고 내렸다. 힘들게 오르막을 올랐건만 내리막의 환희를 맛보지 못해 아쉽기도 했지만 우리를 지켜준 천사에게 감사하며 아르헨티나와 작별했다.



안데스 산을 넘어 칠레로

1부 끝